

씨앤지하이테크, 나가세와 13.5억 원 규모 공급 계약 체결

- ▶ SK하이닉스 우시 공장 납품... 지난 16일 75.6억 원 수주에 이은 두 번째 수주
- ▶ 글로벌 메이저 기업의 공격적 투자 힘입어 추가 수주 기대

<2018-05-24> 씨앤지하이테크가 이달 두 번째 SK하이닉스향 수주에 성공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화학약품 혼합공급장치 전문 기업 씨앤지하이테크(264660, 대표이사 홍사문)는 23일 나가세엔지니어링서비스코리아(주)와 13억 5천만 원 규모의 반도체 화학약품 혼합공급장치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17년 매출액 대비 약 1.8%에 해당하는 규모다. 오는 7월 SK하이닉스 우시 C2F라인에 납품 예정이다.

특히 일 주일만에 이뤄진 추가 수주라는 점이 주목된다. 씨앤지하이테크는 지난 16일 우시 공장에 75.6억 원 상당의 화학약품 혼합장치를 공급하게 됐다고 공시한 바 있다.

5월 성사된 두 건의 수주는 나가세미전자과기(상해)유한공사에서 설치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첫 사례다. 나가세미전자과기(상해)유한공사는 씨앤지하이테크가 현지 고객사 대응을 위해 최근 30% 지분 투자를 진행한 중국 법인이다. 향후 고객사 다변화를 위한 영업 전초기지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씨앤지하이테크 홍사문 대표이사는 "SK하이닉스는 글로벌 D램 업계 2위 기업으로, D램 생산량 절반을 담당하는 우시 공장 확장에 연말까지 9,500억 원 규모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공표한 바 있다"며 "주요 고객사의 공격적인 투자에 힘입어 향후 추가적인 수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자료문의 : 씨앤지하이테크(주) 이재홍 이사 (031-659-9803), 이창호 과장 (031-659-9822)

(주)IR큐더스 김창훈 매니저(070-5068-6321), 김물결 선임 (070-5068-6320)